

종합·해설

문 “과반확보 자신” 손 “결선티켓 잡자”

■ 민주당 경선 분수령 ‘수도권 대회전’ 전망

문, 여론조사 독주 속 ‘쓸림현상’ 기대

손 “정치는 생물” 대역전 드라마 확산

민주당 통합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 모바일투표가 12과 13일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시작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의 선거인단의 규모는 ▲경기 14만8520명 ▲서울 15만 3676명 ▲전국 추가 16만155명 ▲6월 전당대회 선거인단 7만1608명 등 모두 53만 3959명에 달한다. 이 같은 선거인단의 규모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지역 경선 선거인단(51만5436명)의 규모를 넘어선다. 때문에 결선투표 여부는 수도권에서 판가를 날 전망이다.

13일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반반으로 보면서 수도권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해

오는 16일 서울 경선에서 문 후보가 누적득표를 과반을 확보하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약간 우세하다.

문 후보 측 유권자 대변인은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 추이를 따라가고 있다”며 “문 후보의 독주가 계속돼 쓸림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과반을 넘길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1일 민주당 후보 선출 이후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이 문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분석되었다.

문 후보 측은 “안 교수와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당 경선을 빨리 마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표심이 전통적으로 특정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경우가 없었고 당 지도부의 불공정 경선 논란, 결선투표를 통한 역동성의 필요성 등을 들어 문 후보가 과반득표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정치는 생물이다. 남은 두 번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손 후보는 경기와 서울경선에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따낼 것”이라고 했다.

손 후보도 이날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과반의 유권자가 저 손학규를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 경기 경선에서 대반전의 드라마, 대역전의 드라마가 ‘그들의 연출’이 아닌 ‘국민의 연출’로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또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를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며 “중간층·중도층·중산층을 움직일 사람, 대통령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할 사람, 준비된 대통령 저 손학규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투표율과 문 후보의 누적 득표를, 수도권 선거인단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문 후보가 지금까지 확보한 누적 득표수(13만9327표)만큼만 추가하면 과반을 확보, 결선투표를 무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11차례의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평균 투표율을 53.2%를 고려하면 수도권 투표참여자가 28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포인트 차이로 과반득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실시한 권리당원 모바일투표에서 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수도권에서 52~53%를 확실히 넘겨야 과반득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박원순 회동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3일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만남은 박 시장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회동은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안철수 사찰” 박근혜 책임” 진상 규명 촉구

민주당 유윤근 조사특위 위원장

민주당 통합당은 13일 경찰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사찰 논란 보도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섰다.

유윤근 민주당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 원장의 불출마를

중용하며 언급한 여자관계, 뇌물사건 등 논란은 경찰의 뒷조사로부터 비롯됐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실상 경찰이 안 원장 뒷조사를 했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국회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당 탈당 가속화

광주·전남 지역의원들도 가세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 광주·전남에서도 현역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의 탈당이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일한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시의원의 강은미(서구 4)의원이 통합진보당 탈당을 준비중이다. 또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계열 당원 수백명이 집단으로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하는 당원들은 4·11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당내 혁신 실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지방의원 7명이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탈당을 선언한 의원은 전남도의회 김민근(여수5) 의원을 비롯해 여주시의회 정정근 의원, 목포시의회 최정민·여인두·백동규·이규인 의원,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발생한 당 내부 갈등

이후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당내 혁신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혁신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길에 나아가기 위해 통합당을 탈당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옛 당권파가 중심이 된 통합진보당은 14일 광주 빚고을체육관에서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사수, 공안탄압 아웃 광주전남 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민호 광주시당위원장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극복하고 진보 대통합으로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진보정당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민생의 현장에서 진보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원대회에는 광주시당, 전남도당 지도부와 오병운·김성동 국회의원, 33명의 지방의원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지원 대선 후보 “정책중심, 선거 모범 보일 것”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지원 변호사는 13일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절망감이 극에 달해 있다”며 “국내 첫 매니페스트 후보로서 정책중심 선거의 모범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같은 정책중심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요 혁명이 될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대선 자금 비리가 터져나올 소지가 없어지

고 선거 채무로 인한 측근 실세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지역감정을 선전 선동하는 선거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동철, 광주지역 중소기업 간담회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14일 광주 광산구 첨단 한 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업중앙장, 지식경제부 문승욱 중견기업 정책국장, 문규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진흥공단·광주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은행·광주연구개발특구 등 11개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 내 8개 산업단지 입주한 1000여개의 중소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방,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이은방(민주·북구 6) 의원은 13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보수공사 비용과 분뇨처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 65세 이상 독거 노인, 장애인 등이다. 이 의원은 “분류식 하수관거와는 달리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정화조 관리비용과 함께 악취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오섭, 입양아동 지원 조례 통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조오섭(민주·북구 2)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입양아동 가정에 축하금 100만원을 주고, 입양아동이 장애인인 경우는 2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구에 해당한다. 또 시는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교통비·교육비·의료비·재활치료비 등을 예산 안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상필, 물 재이용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문상필(민주·북구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빗물 이용 시설과 6만㎡ 이상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 및 운영 권장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해 상수도 사용량의 10% 범위 내 요금 감경 등이 담겨있다.



부동산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대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건당 수천만원~수억원 수익 !!

NPL이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줬지만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무수익어선 또는 부실채권이라 불리운다
NPL 투자란?	부동산 담보부 NPL(제1순위 저당권)을 싸게 매입하여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거나 직접 낙찰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NPL투자의 매력은?	일반경매보다 낙찰이 우월하며, 실무자들이 최고(높은 대충),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

③ 제3기 NPL최고전문가 과정 ③

♣ 개 강 : 9월 11일(화)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야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천투자 교수진

이현준 교수

- * 한국NPL경제연구소장* 법무법인(비)리온/자산관리팀장
- * 대외육선NPL실천투자교수
- * PMG(비)론리부동산(강남)총리NPL전문교수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 * 특강 : 이영준교수("부실채권과경매이것이"저자, PMG(비)론리부동산총리NPL전문교수)

◆ 무료 공개특강 ◆

내용	"NPL의전망과수익구조"
일시	* 9월7일(금) : 저녁7시 / * 9월8일(토) : 오전10시
혜택	* 사전예약및당일접수시 * 수강료10%할인 / 교재20%할인

Dawa (주)다와옥션 ☎ (062)352-8589(대)

'법원경매,의 집값이! www.dawauction.co.kr

▷ 남구 월성동 4동 4번지 / 신원동 4동(구, 전보령청 4기리)

이지공인중개사

(금)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166p, 건평 470p, 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증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 ▶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금매 대로 35m 도로접합, 투자가치 높음, 매가121억
- ▶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14-1임야 077,727㎡(23,512평) 매가 평당 5천원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1,412평) 매가평당100만
- ▶ 나주시 문평면 잡종지 6차선도로 450M 접합 15,638㎡(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 ▶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 4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 ▶ 광주 서구 매월동 공영주택부근 대지8,433㎡(2,550평)매가평당90만
- ▶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계회관리지역 도로여건중음)
- ▶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면 이주중음)대 210평 매가 평당 70만
- ▶ 무안군 운봉면 연리 계회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120m접,지 대를매 매가평당15만
- ▶ 장성 남면 2층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정적합

기타물건 다량보유

- ▶ 장성 남면 2층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정적합
- ▶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항차량 진입가능, 참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 ▶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3,930평)도로접,공정참고 전원주택 등적합
- ▶ 나주군 봉황면 덕곡리 2차선 도로 접, 전.임야6,100평 매가1억5천만
-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 400만 중상상업지역 위치좋은
-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421평)년수익5~6백만, 주 밀농장 전원주택 가족유지용 매가 3,400만
- ▶ 장성을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참고, 전원주택,공정등적합, 전.100,100평 매가 평당15만
- ▶ 장성 북하면 악수리 백암사입구 모델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종 매가17억
- ▶ 서구회정동 연주시거리부근 상가 주택 준주거지역 대900평,전148평 보7천만 원540만 매7억
- ▶ 서구 용암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지121평 2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 ▶ 광안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용,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 ▶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교차로 상가 매가12억5천만,용,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 ▶ 장성 남면 2층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정적합
- ▶ 장성 북하면 악수리 백암사입구 모델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종 매가17억
- ▶ 서구회정동 연주시거리부근 상가 주택 준주거지역 대900평,전148평 보7천만 원540만 매7억
- ▶ 서구 용암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지121평 2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 ▶ 광안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용,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 ▶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교차로 상가 매가12억5천만,용,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수익성 최 상

① 키즈테마카페매대

- 카페, 피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매대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경매투자

-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2.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 3.NPL 매입/투자비용 전수
- 4.단독/공동투자 가능
- 5.교육/임장비용 회비 550만원

자본주 모심 / 10억이상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